

'12·3 내란사태' 진정 국면이나, 격랑이나 '갈림길'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이목 집중 민주, 韓 탄핵 절차 멈추고 오늘까지 지켜보기로 국힘 "탄핵 추진 민주당이 국정 혼란 가중"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12·3 내란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지 갈림길에 섰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처리와 관련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국회로 공을 넘긴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마저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시간을 끌 것이라 예상 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지도부 의견 등 당 안팎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일단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는 방침을 바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를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애초 지도부가 고려한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데 초점을 맞춰 지도부가 전략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등 국정 혼란의 책임을 둘러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숨고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총리실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온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총리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겠다는 시그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간절히 기대를 갖고 인내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

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새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한 셈이다.

여기에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특검법에 변화가 없다면 재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사법적·정치적 절차 진행을 서둘러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엄호 세력'과 손잡고 정치·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며 정국 불안에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국정 초토화 선언"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은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27·30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한 상태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해 민주당이 2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표결은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우원식 "특검법 공포하지 않은 韓 매우 잘못"

"국민 요구를 견해 충돌로 표현...온당치 못해" "헌법재판관 선출, 정치협상 대상 아냐" 일갈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사태' 외중에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또 "(특검에 대해) 재의요

구를 하든, 수용하는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처리했다"며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

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與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지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65·서울 용산·사진) 의원이 지난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박광온, '일곱번째 나라' 계간지 출간

개헌·민주주의·선거제도 등 사회대계약 추진 필요성 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25일 헌법 개정 논의를 담은 계간지 '일곱번째 나라'를 출간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창간준비호에 실은 글에서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제왕적 대통령제

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 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국회, 오늘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여야정협의체 출범前 정책위의장 실무협약

여야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전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금융기

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견인할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준비호에는 박 전 원내대표 외에도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한 변호사 등의 개헌에 대한 생각도 담겼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뚜렷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가 최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싱크탱크인 '일곱번째 나라 LAB'을 설립했다. /김진수 기자

양당 정책위의장의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의 성격으로 이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올해 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광 김성현(430221-1****)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재산에 대한 최고 회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년110525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김형선
○한정승인수리일: 2024년 12월 24일
○공고기간: 2024년 12월 26일 ~ 2025년 1월 24일
○연락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삼리길 10, 101동 801호 (성남리, 무안승원베리저더플래스아파트) (010-9670-2630)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되는 분할도가능) 급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드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